

숫자로 보는
충북 50년사



농업축산임업



- 38** **농가 및 농가인구**
농가 및 농가인구 감소, 최근 은퇴영농 확대로 회복세
- 40** **경지면적**
경지면적 감소와 논농사 급감세
- 42** **식량작물 생산**
식량작물 경작면적은 급감, 미곡과 잡곡 생산은 늘어
- 44** **채소류 생산량**
충북의 대표 채소는 "배추, 수박, 토마토"
- 46** **과실류 생산**
충북의 대표 과일은 "사과, 복숭아, 포도"
- 48** **가축사육**
충북은 유기농 축산으로 변신중이에요
- 50** **산림면적**
충북의 산림 보전은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농가 및 농가인구

1960년 농가당 인구
6.3명에서
2015년 **2.4**명으로
위축

농가 및 농가인구 감소, 최근 은퇴영농 확대로 회복세

엄마, 아빠~ 우리 농가로 가요!
집들이 비용, 농가주택수리비, 경작지 임대료 등
귀농인들의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이
많아지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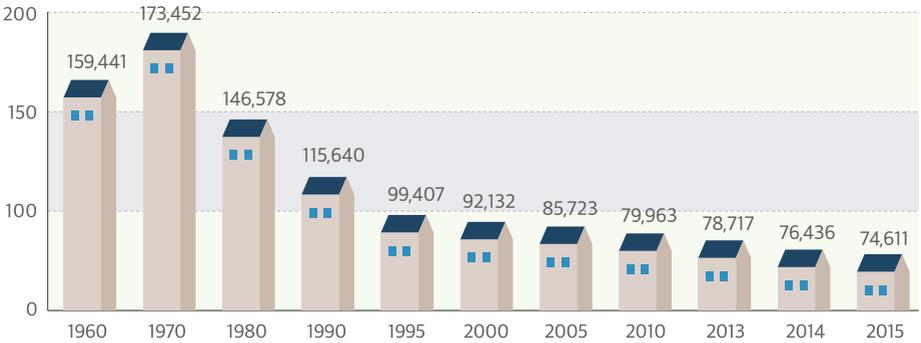
전형적인 농업도였던 충북이 1980년대 산업화가 급진전 되면서 농가 및 농가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 당시 인구의 72.9%에 달하던 농가인구는 2015년 11.0%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한편, 농가당 인구도 1960년대 6.3명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3.0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2015년 현재 2.4명으로 위축된 상황이다. 이는 이농향도(離農向都)가 지속된 결과이다.

최근들어 농가 및 농가인구의 위축세가 다소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대도시권과 근접해있고 청정환경이 비교적 잘 보전된 충북으로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농가 및 농가 인구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가수

천가구



농가당인구

1960년 당시 인구의 72.9%에 달하던
농가당인구는 2015년 11.0%까지 감소



1960년 >>>>> 2015년

단위 : 가구, 명

구분	농가수	농가인구				농가당인구
		계	남	여	인구대비(%)	
1960	159,441	998,380	494,371	504,009	72.9	6.3
1970	173,452	1,023,182	514,900	508,282	70.3	5.9
1980	146,578	744,158	379,475	364,683	52.2	5.1
1990	115,640	433,051	215,923	217,128	31.2	3.7
1995	99,407	326,467	162,098	164,369	23.4	3.3
2000	92,132	277,534	137,815	139,719	18.5	3.0
2005	85,723	238,610	118,516	120,094	15.9	2.8
2010	79,963	211,522	105,235	106,287	13.4	2.6
2013	78,717	197,410	97,460	99,950	12.3	2.5
2014	76,436	187,752	92,687	95,065	11.7	2.4
2015	74,611	178,248	89,330	88,918	11.0	2.4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경지면적

1975년 대비 2015년
총 경지면적
176,432ha에서
111,568ha로
감소



경지면적 감소와 논농사 급감세

충북의 경지면적은 산업화와 FTA로 인한 농산물시장 개발, 농촌고령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속적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충북의 산업화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 감소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이후 경지면적 감소세는 다소 감소되고 있으나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지면적 비중은 논이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반면 밭의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WTO 타결과 FTA 체결 등으로 농가의 주수입원이 되어 왔던 쌀 대신 고부가가치의 밭작물로 대체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경지면적의 감소는
쌀 생산과 농작물 생산량을
감소시켜요~

단위 : ha

구분	경지면적					가구당 경지면적		
	계	논	구성비(%)	밭	구성비(%)	계	논	계
1975	176,432	79,414	45.0	97,018	55.0	1.09	0.49	0.60
1980	171,987	84,455	49.1	87,532	50.9	1.17	0.58	0.60
1990	152,655	82,138	53.8	70,517	46.2	1.32	0.71	0.61
1995	143,400	70,544	49.2	72,856	50.8	1.44	0.71	0.73
2000	134,587	64,905	48.2	69,682	51.8	1.46	0.70	0.76
2005	128,162	60,916	47.5	67,246	52.5	1.50	0.71	0.78
2010	116,973	50,999	43.6	65,974	56.4	1.46	0.64	0.83
2013	114,530	48,062	42.0	66,468	58.0	1.45	0.61	0.84
2014	112,097	45,164	40.3	66,933	59.7	1.47	0.59	0.88
2015	111,568	44,541	39.9	67,027	60.1	1.50	0.60	0.90

자료 :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식량작물 생산량



경지면적은 1962년 대비
27.4% 수준으로 감소,
생산량은 **70.3%**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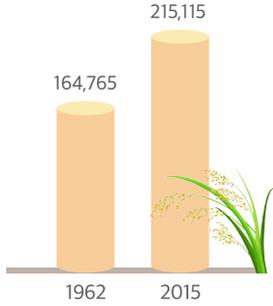


식량작물 경작면적은 급감,
미곡과 잡곡 생산은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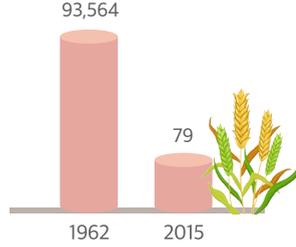
2015년 현재 총복의 식량작물 경지면적은 1962년 대비 27.4%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생산량은 70.3%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 작목별로 편차가 크지만 재배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영농과학화와 기계화 등으로 인해 효율성이 증가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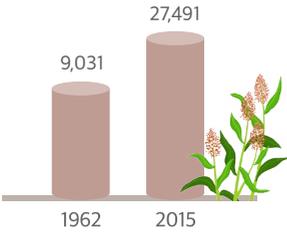
미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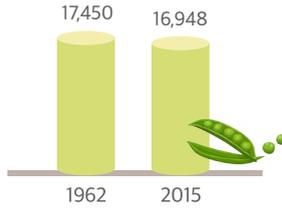
맥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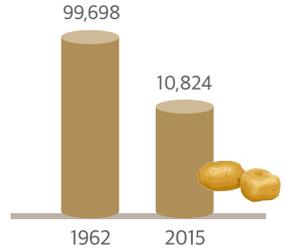
잡곡



두류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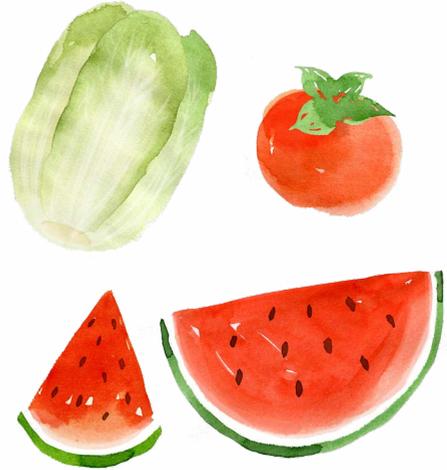


단위 : ha, 톤

구분	계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62	205,821	384,508	65,443	164,765	79,807	93,564	19,388	9,031	31,916	17,450	9,267	99,698
1971	166,489	401,795	73,987	250,899	38,691	76,955	8,757	8,696	35,462	31,914	9,592	33,331
1980	117,229	251,710	77,724	187,501	6,796	13,936	4,813	12,242	24,286	26,982	3,610	11,050
1990	100,387	377,083	75,722	326,327	502	1,275	4,464	18,157	18,910	28,296	789	3,208
1995	77,755	319,482	60,147	269,449	88	228	4,004	14,484	12,576	17,652	940	17,669
2000	77,996	354,876	60,040	313,527	192	411	4,173	14,087	11,433	16,041	2,158	10,810
2005	73,772	316,878	53,488	260,725	236	665	4,614	19,810	12,869	21,045	2,565	14,633
2010	65,986	277,962	46,826	223,622	88	226	4,457	23,064	11,490	16,354	3,125	14,696
2013	63,763	297,287	42,893	220,383	66	134	5,005	31,239	12,052	26,134	3,747	19,397
2014	60,381	285,695	40,653	215,456	84	191	4,991	30,854	11,634	24,594	3,019	14,600
2015	56,377	270,457	39,786	215,115	42	79	5,410	27,491	8,811	16,948	2,328	10,824

자료 :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충북통계연보

배추 **153,675**톤,
수박 **68,185**톤,
토마토 **15,263**톤



충북의 대표 채소는 "배추, 수박, 토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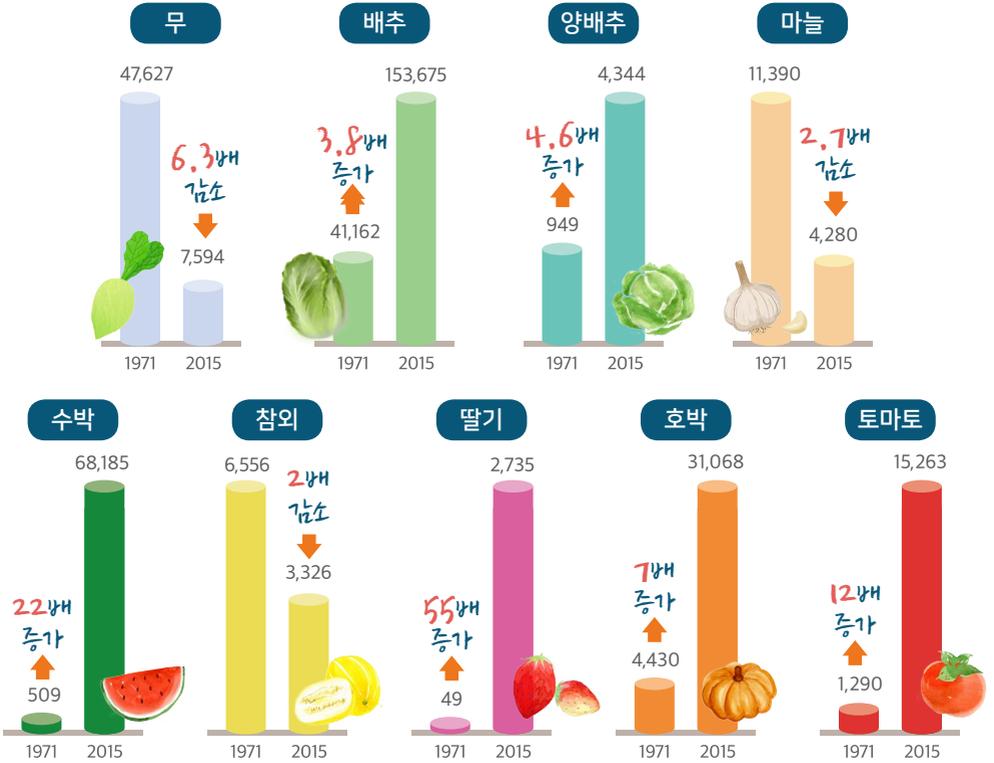
충북에서 재배되고 있는 대표적인 채소류는 식습관 변화 등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채소류는 배추(153,675톤), 수박(68,185톤), 토마토(15,263톤) 등으로 나타났다.

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채소류 재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의 재배면적은 1971년과 비교해 6.3배 감소한데 비해 수박은 22배, 토마토 12배, 호박 7배, 양배추 4.6배, 배추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의 경우 고랭지 채소로서의 수요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고(단양), 수박, 호박, 토마토와 양배추 재배량의 증가는 소비자 기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과 멥동 수박(음성), 어상천 수박(단양) 등 특화브랜드 이미지 정립이 강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 수박, 토마토는 과일로 생각하기 쉬우나 채소류로 분류



단위: 톤

구분	무	배추	양배추	마늘	수박	참외	딸기	호박	토마토
1971	47,627	41,162	949	11,390	3,145	6,556	49	4,430	1,290
1980	139,639	233,253	3,082	22,148	10,662	8,713	2,849	1,477	884
1990	75,894	184,946	4,230	15,442	22,969	3,395	1,920	7,850	1,798
1995	46,572	174,816	9,787	10,033	59,462	4,354	3,583	8,158	6,407
2000	107,877	269,745	16,357	6,802	60,562	1,350	1,268	15,027	13,715
2005	72,323	168,110	10,730	4,402	82,219	289	2,496	18,979	22,100
2010	46,712	145,546	12,677	5,079	75,880	110	1,115	27,848	12,419
2013	47,119	197,360	9,532	5,641	66,041	99	3,315	25,667	7,153
2014	35,762	195,391	8,664	4,349	73,625	50	3,841	25,379	17,228
2015	7,594	153,675	4,344	4,280	68,185	3,326	2,735	31,068	15,263

자료 :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충북통계연보

재배면적은 1962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

복숭아 생산량 **73**배
포도 생산량 **143**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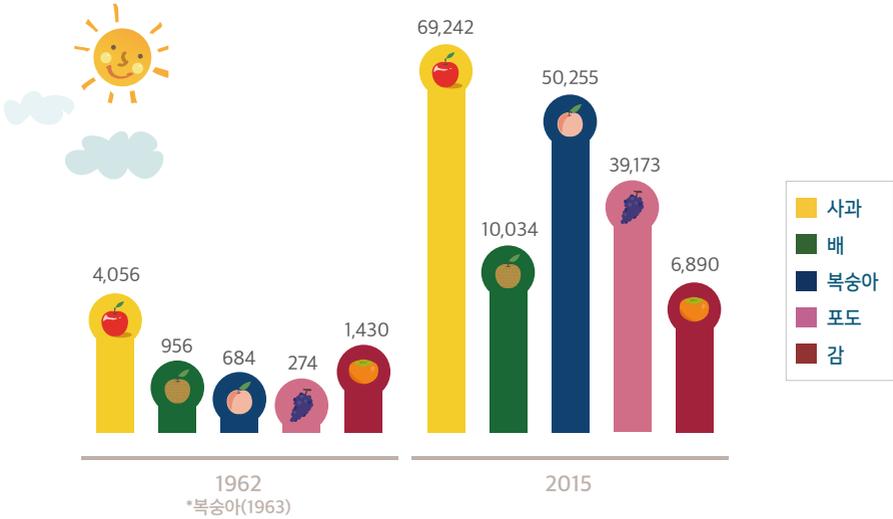
2015. 11. 18
충북 과일 '맛·품질' 우수성 인정받다

충북 과일, 2015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서
최우수상 및 전국 37점중 10점(27%)을 입상하며
충북 과일의 맛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충북의 대표 과일은 "사과, 복숭아, 포도"

충북에서 재배되는 과실류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사과이고, 다음으로 복숭아, 포도, 배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사가 시작된 1962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재배면적이 1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은 복숭아와 포도로 복숭아는 재배면적이 37배, 생산량이 73배 증가하였고, 포도는 생산면적이 35배, 생산량은 1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과는 재배면적 6배 생산량 17배, 배는 재배면적 4배, 생산량 10배, 감은 재배면적 4배, 생산량 5배로 가장 적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ha, 톤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62	638	4,056	119	956	113*	684*	69	274	185	1,430
1971	2,469	12,295	295	2,146	523	3,688	405	1,700	183	837
1980	7,616	67,247	525	4,142	760	6,664	729	4,314	205	1,494
1990	4,977	53,230	288	2,968	1,184	11,840	2,008	15,944	97	738
1995	5,219	80,472	856	3,680	1,082	13,460	4,881	51,592	147	2,123
2000	3,420	59,390	2,175	17,795	2,284	21,264	4,543	81,047	510	6,039
2005	3,784	46,964	1,401	26,684	3,291	50,352	3,212	56,178	897	8,411
2010	4,252	64,973	712	17,439	3,826	33,554	2,750	46,695	1,584	9,389
2013	3,867	63,177	531	11,803	3,709	39,315	2,732	36,745	1,143	5,738
2014	3,877	56,667	526	11,647	3,775	40,846	2,596	42,522	970	4,715
2015	3,984	69,242	502	10,034	4,174	50,255	2,393	39,173	898	6,890

자료 :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충북통계연보

* 복숭아: 1963년

가축사육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닭은 **1127**만 마리
오리는 **192**만 마리



과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유기농이 단순한 농업기술이 아닌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고자하는
공존의 철학이 담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형태라는 것에 대한 실제 체험의 기회와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충북은
유기농 축산으로
변신중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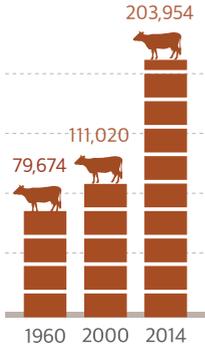


2014년 기준으로 충북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는 가축은 닭(1127만), 오리(192만) 순으로 나타났으며, 말은 410마리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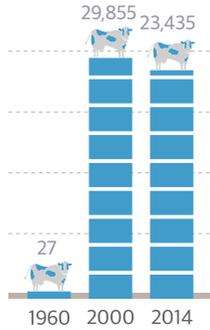
1960년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가축은 젓소로 무려 870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리가 250배, 닭 21배, 꿀벌 20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충북에서 사육되는 가축은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2013년을 기점으로 약간씩 감소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등과의 FTA로 인한 우려, 인건비 증가 등과 함께 양적 성장 보다는 유기농 등의 고부가가치 방향을 변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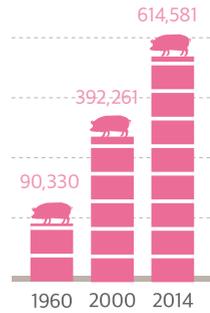
한육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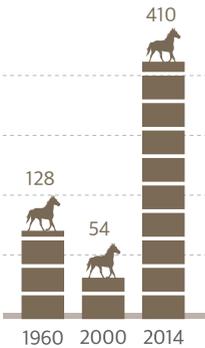
젖소



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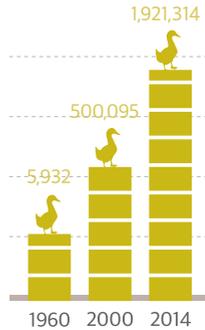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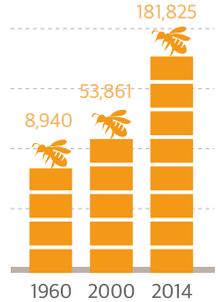
닭



오리



꿀벌



구분	한육우	젖소	돼지	말	닭	오리	꿀벌
	마리수	마리수	마리수	마리수	마리수	마리수	군수
1960	79,674	27	90,330	128	586,770	5,932	8,940
1970	107,866	899	57,635	89*	823,100	6,147*	5,825
1980	110,282	5593	70,006	20	1,038,274	6,940	15,772
1990	111,703	22,124	186,389	17	3,041,583	102,250	36,678
1995	175,334	27,150	297,047	55	4,862,368	153,992	53,861
2000	111,020	29,855	392,261	54	6,732,073	500,095	108,696
2005	134,285	25,221	513,432	125	7,516,105	992,641	177,507
2010	203,211	22,054	574,050	237	10,662,041	1,581,626	168,501
2013	206,792	23,106	635,765	325	11,562,683	2,051,699	182,627
2014	203,954	23,435	614,581	410	11,272,921	1,921,314	181,825

자료 : 통계청 가축동향조사(1990 ~ 2014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충북통계연보
* 말, 오리 : 1971년

산림면적

소유별 산림면적은
495,806ha,
임상별 임목축적은
5,989만 m³

충북의 산림 보전은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21세기는 숲에 희망이 있다.
맑은 공기와 향기를 느끼며
자연과 하나되는 행복!



충북의 산림면적은 산업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소유별로는 공유림은 약간 증가(103.9%)한데 비해 국유림은 약간 감소(99.8%)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유림의 감소추세가 가장 높아 1960년 대비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상별 임목축적은 1970년에 비해 2010년에는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엽수는 8.78배, 활엽수 15배, 혼효림 8.9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산림 보전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선택적 간벌과 함께 고품질 경제수목으로 품종 전환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소유별 산림면적

■ 국유림 ■ 공유림 ■ 사유림



임상별 임목축적

■ 침엽수 ■ 활엽수 ■ 혼효림



우리 충북의 산림은 그 면적의 67%를 차지하는
중요한 미래 자산입니다.



소유별 산림면적

단위 : ha

구분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1960	535,425	88,879	79,172	367,374
1970	530,259	68,678	82,851	378,730
1980	511,571	67,650	83,031	360,890
1990	504,522	68,953	81,878	353,691
1995	502,446	70,693	82,406	349,347
2000	500,157	74,272	82,371	343,514
2005	497,773	81,483	82,293	333,997
2010	495,806	88,701	82,257	324,848

임상별 임목축적

단위 : m

구분	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1970	5,890,919	2,618,194	1,214,997	2,057,728
1980	12,027,187	4,853,384	2,306,957	4,866,846
1990	18,882,351	7,917,582	3,464,402	7,500,367
1995	21,502,936	8,041,230	6,871,146	6,590,560
2000	26,933,567	10,152,076	8,513,846	8,267,645
2005	36,572,865	17,492,523	9,385,431	9,694,911
2010	59,895,608	22,958,202	18,618,291	18,319,115

자료 : 충북통계연보